‘화엄의 야단법석’ 환희 속 회향

영축총림 통도사, 30일간 구법여행 마무리

양산 통도사=하성미 기자

영축총림 통도사가 화엄산림법회를 회향했다. 이번 화엄산림법회는 역대 최다인 2만여 명이 참여해 마지막 소대의식에서 대중이 산을 가득 메우는 진풍경을 연출했다. 국내 최대 화엄법회라는 명성 속에 마지막 회향까지 질서 유지와 안전관리가 돋보여 주지 영배 스님을 비롯해 소임 국장 스님 그리고 봉사자들까지 모두 큰 박수를 받았다.

통도사(주지 영배)가 30일 동안 이어온 화엄 구도 여행 ‘화엄산림법회’는 1월 5일 설법전에서 회향했다. 회향법회는 방장 성파 스님의 법문과 주지 영배 스님의 인사말 그리고 영가 시식 및 소대의식 순으로 진행됐다.

방장 성파 스님은 “행백리자 반구십리(行百里者半九十里), 100리를 가려는 사람은 90리를 가고서도 이제 절반쯤 왔다고 여긴다”며 “끝까지 마무리가 중요하다. 마지막까지 정진하라”고 당부했다.

주지 영배 스님은 “10만여 영가를 모시고 수만 명의 신도들과 함께 부처님의 진리 화엄경을 공부하고 법문을 들었다”며 “화엄경은 우리 삶의 지표다. 잘 간직해 2019년에는 화엄의 길을 걷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역대 최다 2만여 불자 참여
화엄정신 되새기며 정진해
많은 인파에도 질서유지 눈길
“2019년 화엄의 길 걸어가라”

이번 화엄산림법회는 특히 많은 사부대중이 찾아 눈길을 끌었다. 주지 영배 스님 취임 후 꾸준히 화엄산림 참여 인원이 늘어났고, 이번에 최다 인원인 2만 명이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불자들은 화엄산림법회는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자부심이 생긴다고 말했다. 화엄산림법회의 전통과 시작인 자장 스님은 화엄도량으로 통도사를 창건했다”고 덧붙여 강조했다.


영축총림 통도사가 화엄산림법회를 회향했다. 이번 화엄산림법회는 역대 최다인 2만여 명이 참여했으며 마지막 회향까지 질서 유지와 안전관리가 돋보였다.

정신에서 대승불교의 정신을 알 수 있고 함께하는 것으로 화엄정신을 잇는다고 동참 의미를 설명했다.

화엄산림법회는 1927년 시작됐다. 1925년 통도사 극락암 경봉 스님이 어려운 노인들을 보살피기 위해 만일염불회를 개설했고, 대승보살도를 설하기 위해 화엄산림법회를 시작했다. 이와 관련해 방장 성파 스님은 “화엄경 법회는 1927년 전에도 꾸준히 이어져 왔으며 개산조

성파 스님은 회향법문에서 “자장 스님은 당나라에서 화엄경을 설한 화엄종장이며 통도사는 화엄종찰”이라고 설명했다. 또 “가람 배치를 살펴보면 화엄경에 따라 지어져 화엄 정신이 그대로 살아있다. 도량 곳곳이 바로 화엄을 상징하며 여러분이 소우주이자 화엄이라고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화엄산림법회를 찾는 또 다른 이유로 불자들은 뛰어난 강백과 선사 그리고 율사 스님들의 가르침을 생생하게 맛볼 수 있어서라고 답했다. 화엄산림법회는 경봉 스님, 보우 스님, 해담 스님 3명의 법사로 시작했으나 현재 전국 각지에서 초청한 30명의 법사 스님들이 매년 설법을 잇고 있다.

특히 화엄산림법회 기간 열리는 영가천도는 불자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있다.

김진서(54 · 부산 연제구) 씨는 “평소 어머니가 화엄경을 좋아하셨고 통도사에 찾아 화엄경 법문을 듣고 하셨는데 이번에 화엄산림법회에 영가를 올리고 소대의식도 함께 할 수 있어 너무나 위안이 된다”며 “화엄경을 함께 듣는 영가들을 위해 지극하게 기도해주시는 스님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통도사는 화엄산림법회 기간 매주 토요일 저녁예불 후에 설법전에서 법성게 정진을 진행하고, 일요일 오전 법문 후에는 천도재를 봉행했다. 법성게는 영가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친족을 잃은 슬픔을 위로하는 천도의식이다. 스님들과 불자들은 반야용선을 따라 함께 광목천을 잡고 법당을 돌며 화엄경을 읊고 장엄 염불하는 장관을 연출한다. 그리고 마지막 회향법회 후 대중은 위패와 다라니를 들고 소대의식에 참여하며 극락왕생을 기원한다.

이번 법회는 특히 많은 대중이 참여했지만 안전사고가 없었고 뛰어난 질서 유지로 대미를 장식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음향 시설을 도량 곳곳에 설치해 설법전에 들어오지 못한 대중이 어디서든 법문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 섬세한 배려가 눈길을 끌었다. 또한 이번 화엄산림법회를 위해 통도사 신행단체 12개 회원 500여명이 봉사에 대거 참여했다.

주지 영배 스님은 “화엄산림법회 기간 동안 가장 많이 정성을 기울인 것이 여러분의 안전이었다”며 “통도사 설법전이 전국 법당 가운데 가장 큰데도 좁게 느껴질 정도였다. 공양간 및 관음전 그리고 후원 등 도량 곳곳에서 현재 법문을 듣고 있는 것으로 안다. 여러분을 위해 한 달 동안 밤낮 없이 뒷바라지 해준 신행단체 회원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약수사, 기해년 출발 생명나눔으로 ‘훈훈’

장기기증등록 · 환우 기금 전달

부산 사하구 약수사는 2019년 기해년 새해를 생명나눔으로 시작했다.

약수사(주지 혜우)는 1월 6일 경내 대웅전에서 생명나눔 법회를 봉행하고 장기기증희망등록서와 난치병 환우 돕기 기금을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에 전달했다.

약수사 신도들은 이날 장기기증희망등록서 30장을 작성했고, 저금통으로 십시일반 모은 60만원도 함께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부산 괴정 옥련암 주지 지연 스님과 신도들도 함께 생명나눔에 동참해 따뜻함을 더했다.

약수사 주지 혜우 스님은 생명나눔의 따뜻함이 릴레이처럼 온 세상에 일어나기를 바란다는 바람을 전했다.

혜우 스님은 “오늘 이 행사가 어렵게 생명을 유지해 나가는 환우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여러분의 선한 행동이 시작점이 되어 각 사찰에서 지속적으로 릴레이처럼 이어지고 행복한 불국토가 되는 한 해가 되자”고 당부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2019년 부산불교연합회 신년하례 모습. 부산불교계가 기해년 새해를 맞아 새로운 원력을 세우고 정진할 것을 다짐했다.

부산불교 “새해 새 원력과 발심으로”

각 연합회 기해년 신년하례로 각오 다져

부산불교가 기해년 새해를 맞아 새로운 원력을 세우고 정진할 것을 다짐했다. 부산불교는 한 해 동안 전통문화 계승에 앞장서며 복지를 통한 사회공헌과 정법 홍포를 위해 정진한다.

부산불교연합회(회장 경선)는 1월 4일 부산 코모도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신년하례회를 개최했다.

부산불교계는 먼저 중요무형문화재 122호인 연등축제를 중심으로 불교문화의 발굴, 계승하고 발전을 위해 활동을 펼친다. 베트남 등 주요 불교국가와 교류하며 문화교류에도 앞장설 예정이다. 또한 팔관회를 중심으로 불교의 사회화 및 인간성 회복운동을 전개하고 이웃돕기를 통해 자비사상을 실천한다. 특히 정법 홍포를 위해 화합하고 부산불자대상을 처음으로 제정해 시상한다.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경선 스님은 “신년하례회는 승가와 재가가 함께 불교의 발전과 정법 홍포를 향한 큰 뜻을 세우기 위해 개최한다”며 “새롭게 세운 원력은 불자만을 위한 것이 아닌 부산시민과 나아가 국가를 위한 선물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영도구불교연합회(회장 호법)도 1월 3일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에서 기해년 첫 연합법회를 봉행하고 새로운 포교 계획으로 화합을 다졌다.

영도구불교연합회는 2019년 연합 사업으로 호국영령을 위한 위령재, 경로잔치 및 자비의 연탄 나눔 등 화합과 포교를 위한 활동을 새롭게 전개한다. 회장 호법 스님은 연기적 공동체의식을 강조하며 모든 이들의 행복을 위해 전법활동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남구불교연합회는 1월 4일 남구청 대회의실서 자비나눔 성금 전달식을 통해 새해 첫 출발을 사회공헌으로 시작했다. 전달식에서 남구불교연합회는 성금 900만원과 쌀 6800kg을 지역사회에 후원했다. 후원금은 남구불교연합회에서 개최한 일일찻집 수익금으로 마련했다.

하성미 부산주재 기자

“광주불교 佛法 전파 더 널리”

광주불교연합회, 성도재일 연합대법회 봉행



광주지역 불자들이 성도재일을 기념하기 위한 연합법회를 봉행했다.

광주불교연합회(회장 동현)는 1월 9일 광주시청 대강당에서 ‘불기2563년 성도재일 연합대법회’를 개최하고, 제4대 광주불교연합회장 동현 스님 취임식을 실시했다. 행사에는 연합회 스님들을 비롯해 정관계 인사 등 600여 명이 참여했다.〈사진〉

이날 동현 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해방 후 80년의 시간동안 광주시민의 삶 속에 면면히 이어온 자비, 평등의 부처님 가르침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근간이 됐다”며 “부처님 가르침을 사회에 펼쳤던 숭고한 뜻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행사에서는 호남지역 가장 큰 재가불자상인 불자대상에 이재언 불자가 선정됐다. 이재언 불자는 15년간 매주 광주소년원생을 위한 교화활동과 빛고을나눔나무 승보공양, 포교사 활동, 봉축행사 기획 등에 참여해 지역불교 활성화에 큰 공을 세운 것이 인정됐다.

봉축대상에는 지난해 부처님오신날 행사에서 차량봉사, 제등행진 진행요원으로 활동하는 운전불자회 광주지회(지회장 홍신도)가 수상했다. 운전불자회 광주지회는 80여 명의 회원들이 참여해 차량통제, 제등행진 안전요원 등으로 활동하며 봉축행사가 원만히 회향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했다.

행사는 1부 기념식과 2부 성도재일 기념 예불 및 법문이 이어졌다. 봉선사 능엄학림 학장 정원 스님은 법문을 통해 ‘불교란 무엇인가’라는 주제에 대한 해설을 참석자들에게 전했다.

광주불교연합회는 또한 올해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 일정 등을 발표하고, 세부적인 강습회와 교육일정 등을 결의했다. 특히 지난 5일부터 매주 토요일 3회에 걸쳐 지화연꽃, 연꽃컵등, 행렬등 강습회를 시작으로 1월 26일 율동강습회 등 봉축을 위한 사전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